

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우리나라 신문 보도의 특징: 과학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신순철**

소위 황우석 사태 이후 과학저널리즘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후 발생한 광우병 파동, 조류 독감, 신종 플루, 각종 먹거리 안전 문제, 그리고 일본의 핵사고와 방사능 피해 등 과학저널리즘이 역할을 발휘해야 할 사안들은 많았으나, 문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저널리즘은 황우석 사태 이후 큰 발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미확인비행물체(UFO)를 보도하는 우리나라 주요 신문의 논조와 보도태도를 통해 과학저널리즘의 일면을 분석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의 지난 18년간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대개의 UFO기사는 외신 보도를 번역한 기사거나, 목격담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사회면 기사가 많았고, 질적으로도 언어의 혼란, 후속보도의 부재, 정보원의 비과학성, 기본적 사실의 오류, 의혹 부풀리기 식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결론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저널리즘은 아직도 사이비과학의 수준에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외신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자급기사를 늘이는 것, 과학과 언론에 대한 이해를 모두 지닌 언론인의 육성, 언론사 자체의 규정 마련, 정확한 인용과 사실 확인, 정상과학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균형보도를 통해 과학 저널리즘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미확인비행물체, UFO, 과학저널리즘,

1. 문제제기

1) 우리나라 과학저널리즘의 문제점

대중들에게 과학적 사실이란 그들이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중들은 엄밀한 방법으로 과학과 비과학을 판별하기 보다는 언론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바탕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언론이 과학을 다루는 방식은 대중이 과학을 이해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있다. 그러니 대중이 언론을 통해 이해한 과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혹된 것일 우려는 늘 존재한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92% 정도가 과학적 문맹(illiterate in science)으로 밝혀졌다(Jebsen, 2010).¹⁾ 미국 국민의 대다수는 과학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과학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 이 논문은 한동대학교 교내연구지원을 받은 연구의 결과물임.

**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부교수(scshin@handong.edu)

1) 켈슨(2010)은 과학적 문맹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과학적 문맹은 개인이 스스로 과학적 판단력, 분석력, 검증능력을 습득하지 못했고, 그러한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과학적 문맹은 과학적 방법과 과정을 거쳐 수립된 가설, 모델, 이론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한다. 과학적 문맹은 과학적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중적 의미로 오해하는 것과 과학적 설명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낮거나 전무한 것도 포함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과학적 문맹은 과학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과학교육의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수준으로 과학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문맹자가 언론에서 과학적 사실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비판의식을 갖고 수용하기란 매우 어렵다. 당연히 과학이 아닌 것이 과학으로 행세할 우려는 반비례하여 커진다. 대개의 사이비 과학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만한 감정적 요소에 의지하여 과학인양 행세한다. 예를 들어 통념에 쉽게 호소할 수 있는 애국심, 민족의식, 인종주의, 성차별주의가 부분적 개연성, 추측, 단순 경험, 사회위계질서, 파편적 사례들, 비유 등과 결합하여 마치 정상과학인양 위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냉철한 시민의식을 지닌 사람도 과학적 문맹이라면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비판의식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과학이라는 이름에 매몰되어 본의 아니게 왜곡된 사회적, 정치적 사리판단에 이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비과학이 과학의 지위를 획득했을 때 얼마나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우리도 생생하게 경험한 바 있다. 1990년대 말 IMF의 여파로 고단하고 풀이 죽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환희를 주었던 소위 ‘황우석 박사 사태’가 있었다. 세기적 업적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단기간에 세기적 사기극으로 막을 내린 황우석 사태는 과학이 애국심, 민족의식, 영웅심리와 경제결정론적 가치에 지배당한 사건이었다(강명구, 2007).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성과 지상주의, 조급증, 기초과학의 부실함, 맹목적 민족주의에 대한 자책과 회한이 제기되었다. 황우석 본인 다음 가는 책임자로 언론이 지목되었다. 황우석 사태에서 언론은 시중 국민의 과학적 이해를 돕는커녕 오히려 가로막은 장애물이었다. 워낙 언론의 실책이 크다 보니 몇몇 언론사에서 저지른 엠바고 위반과 같은 사안은 오히려 경미한 실수로 여겨졌다. 언론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앞 다투어 비과학적 주제에 집착했고,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두고 우왕좌왕했으며, 모든 전말이 명명백백해진 후에야 스스로 영웅으로 칭송했던 황우석 박사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다. 우리의 언론은 객관보도, 과학보도, 진실보도와는 거리가 먼 선동가에 더 가까웠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우리 언론은 과학저널리즘에 있어서 진전을 보였을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분석한 결과 1994년에 비해 2004년에는 과학기사의 평균 길이는 다소 늘어난 반면, 과학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이화행, 2007). 황우석 사태 이후 과학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선불리 보도했다가 비판당하느니 기사량을 줄이는 편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다른 문제점은 과학이라는 주제가 정치적 이념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2008년 소위 ‘광우병사태’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신문 모두 행정부와 입법부 관료들을 정보원(source)으로 활용하였고, 과학적으로 신뢰할만한 전문가를 정보원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도 자사의 이념적 특성과 맞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전문성이 과학자에 비해 낮은 시민단체 회원이나 일반 시민의 의견을 ‘은밀히’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홍석, 이건호, 2010). 즉 정보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자사의 이념적 지평과 어울리는 사람들의 주장만 편의대로 취합하여 보도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언론이 과학기술 실패를 보도한 것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격려’와 ‘학습’을 주요 프레임으로 활용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 보다는 ‘책임’프레임이 미국에 비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시도가 실패한 경우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후 성공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접근하여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는 미국 언론에 비해 우리 언론은 실패 전에는 막연히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다가 결과가 실패로 나타나면 책임공방과 힐책성 보도가 더 많다는 것이다(박은선 외, 2012).

결론적으로 황우석 사태 이후 발생한 광우병 파동, 멜라닌 파동, 사스(SARS), 신종 플루, 지구 온난화, 조류독감과 구제역 발생, 나로호 발사 등 과학저널리즘이 활약해야 할 이슈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우리의 언론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의료나 보건 관련 보도에서 늘 반복되는 양상이 있다면 언론은 사건 초기에 한껏 공포심을 부채질하다가 사안이 잠잠해지면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들에게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질책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였다든 것이다. 이런 양상이 언론사들 마다 비슷하게 나타나 언론사간 큰 차별성이 없이 패거리 저널리즘(herd journalism)의 양상을 보였다.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신문의 과학저널리즘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신문 중 네 개를 선정하여 지난 18년간 미확인비행물체(이하 UFO)에 대하여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 우리나라의 신문이 UFO를 보도하는 양적, 질적 특징은 무엇인가?

양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기사가 실렸으며, 어느 면에 실렸는지, 이러한 양적특성에서 특이 사항은 무엇인지를 보았고, 질적으로는 인용된 정보원이나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전문성은 신뢰할만한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본에 입각한 보도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문제 2 : 과학저널리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신문이 UFO를 보도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1994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년 동안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²⁾, <한국일보>에 실린 UFO 기사를 수집하여 빈도수, 총량, 기사 게재면 등 양적특성과 논조, 수사법, 객관적 자료제시 여부, 자료 출처 등 질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사를 수집한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 KINDS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검색어는 “UFO”로 하였다. 네 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KINDS를 이용한 일괄 검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표본수집의 가용성에서 편리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해당 네 신문사 정도면 우리나라 언론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KINDS에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 신문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분석대상 기사의 보도 기간을 위와 같이 설정한 것 역시 KINDS를 이용한 기사검색에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검색범위는 기사의 제목에 UFO가 들어간 것으로 한정했고, 기사 본문에만 UFO가 들어간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문에만 UFO를 사용한 기사 중에는 실제 UFO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기사내용이 없이 비유적으로 UFO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³⁾ 같은 이유로 제목에 UFO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확인 비행물체로서의 UFO를 의미한 것이 아닌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2) 통상 한겨레신문이라 말하는 신문의 공식 지명은 <한겨레>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한겨레>라고 칭하였다.
3) 예를 들어 “1997년 브라질과 프랑스의 프레월드컵 경기에서 나왔던 카를로스의 일명 ‘UFO슛’은 시속 108km였다”, ‘새로 지을 건물의 모습이 마치 UFO를 연상시킨다’는 식의 보도는 당연히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2. 과학저널리즘과 미확인비행물체

1) 과학저널리즘의 의미

과학저널리즘(science journalism)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보도의 과학화를 지향하지는 의미의 과학저널리즘이 있고, 둘째는 과학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과학저널리즘이 있다(Upton, 2009). 전자는 쉽게 말해서 객관보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도되는 이슈가 과학적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다만 보도에 있어서 사실 확인, 명확한 근거제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한 내용 검증, 육하원칙에 따른 객관성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과학적 주제와 사실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보도하기 위한 방법과 양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저널리즘이라고 하면 후자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도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과학저널리즘은 기본적인 사실(fact)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과학적으로 신뢰할만한 정보원을 활용했는지 여부와 사이비과학에 해당하는 정보원을 멀리했는지 여부, 분명하고 명료한 의미로 과학적 용어와 현상 설명 용어를 사용했는지 여부, 의혹사항에 대한 후속보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이해할 수 있다.

과학저널리즘과 객관보도는 종종 혼동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객관보도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논란의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동등한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여 보도하는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을 충족하는 것으로 거의 임무가 끝난다. 그러나 과학저널리즘에 있어서는 양자의 의견을 동등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과학으로, 비과학적 사실은 비과학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로지 객관보도의 원칙에만 충실하게 되면 정상과학과 사이비과학을 모두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고, 과학적 주장과 사이비과학적 주장에 동등한 지면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저해할 수가 있다. 객관보도 원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보도나 정상과학 내에서의 논란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태도이지만 과학과 사이비과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자는 현상의 외형이나 기능, 구성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언어⁴⁾를 찾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을 전달함에 있어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기란 매우 어렵다. 인간의 인식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문화적 편견과 취향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어찌면 언어의 틀을 뛰어 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학은 언제나 오류를 딛고 진보해왔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언어 사용은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다. 언론은 이에 덧붙여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원을 찾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다고 해서, 혹은 자칭 전문가나 연구자라고 해서 그가 반드시 신뢰할만한 정보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으로 풀어야 할 이슈를 우리에게 익숙한 통념에 입각하여 푸는 것은 사이비과학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보도는 그 주제와 접근방식에 따라 의료/질병, 공학/기술, 전쟁/무기, 재난/환경변화, 핵/에너지,

4) “객관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과학철학에서는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똑같은 때 유의미한 일관성을 도출하는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한다.

우주/천문, 순수이론, 패러노멀⁵⁾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각각 별도의 보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보자면, 보도 내용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과학적인지, 인용되는 정보원이 과학자인지, 묘사되는 현상이나 결과예측이 중립적인지, 정상 과학의 틀에서 수용할만한 내용인지가 가장 중요하다(Sober, 2008). 우리나라 신문의 경우 과학면 기사는 공학/기술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의료/질병이 뒤를 잇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비해 순수이론 분야의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이화행, 2007). 의료/질병은 광우병, 조류독감, 신종 플루처럼 비교적 단기간에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결말이 도출되는 양식을 갖는다. 공학/기술 분야는 의료분야와 달리 당장 위급한 일이 아니고, 그 내용이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순수이론이나 패러노멀 등은 단기간에 해명되거나 종료되는 사안이 아니고, 당장 대중의 안전과 관련된 시의성이 두드러진 분야도 아니다. 따라서 순수이론이나 패러노멀의 영역은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사의 과학보도의 기본 소양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UFO의 의미와 정체

UFO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 공군 대령 루펠트(Ruppelt)로 알려져 있다. 1952년 미국 공군은 프로젝트 블루북(Project Blue Book)이라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UFO의 과학적 실체는 무엇인가, UFO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를 연구하려는 미국 정부 차원 최초의 공식적 시도였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루펠트 대위였는데 그는 당시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던 ‘비행접시(flying saucer)’라는 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를 찾던 끝에 UFO라는 용어를 만들었다(Clark, 1997). ‘비행접시’라는 말은 1947년 아놀드(Arnold)라는 조종사가 비행 중 어떤 비행물체를 목격했는데 그 속도가 시속 1,000마일(1,600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빨랐고, 비행궤적이 마치 물위를 나는 접시처럼 날렵했다고 증언한 것에서 유래한다. ‘비행접시’라는 용어는 지구인 보다 과학과 기술이 더 진보한 외계인의 이동수단이라는 뉘앙스가 담겨있고, 일부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외계인이 비행접시를 타고 지구에 와서 사람을 납치하거나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땅위에 기하학적 무늬를 남긴다고 생각한다. 루펠트 대위는 외계인의 존재를 함축하는 비행접시라는 용어보다 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고심한 끝에 UFO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 이후 대중담론에서 UFO 역시 과거 비행접시가 그랬듯이 외계인의 존재를 당연시하는 해석이 가미됨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UFO보다 더 객관적인 용어인 UAP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즉 ‘미확인 대기현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비행접시’나 UFO는 이미 그 이름에 그것이 비행물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1947년 ‘비행접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수 만 건의 UFO 목격담이 제보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확인해 보면 대개는 조작이나 허위라고 한다(Nickell, 2007). 조작이나 허위가 아니더라도 목격된 것들의 실체는 구름, 노을, 석양과 같은 대기현상이거나, 여객기나 헬리콥터, 기상관측용 기구와 같은 정상적인 비행물체이거나, 기타 애드벌룬, 풍선, 폭죽 등 이었다. 드물지만 낮은 고도의 인공위성,

5) 패러노멀(paranormal)은 일차적 관찰로는 그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심령술, 접신, 귀신, 유령, 초능력, 염력, 외계인, UFO등이 이 분야에 속하는데 이런 현상들은 정상과학에 근거하여 보자면 착각, 오해, 착시 등으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패러노멀이 뭔가 신비로운 실체의 결과물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정상과학을 부정하거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공군에서 실험중인 신형 전투기, 운석 등을 UFO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상과학으로 보자면 UFO 현상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일 뿐, 그것이 외계인의 비행물체라는 단서는 전혀 없다. UFO가 외계인의 비행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념에 근거하여 그런 주장을 할 뿐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는 없다. 오히려 과학적 견지에서 보자면 많은 목격담이 허위나 착각이라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대기 중에 간혹 볼 수 있는 반짝이는 물체가 곧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상과학의 결론이다.

3) 기존의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우리나라의 언론학 분야에서 UFO, 혹은 미확인비행물체를 주제로 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아마도 UFO가 과학보도의 주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UFO가 충분히 과학저널리즘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과학저널리즘을 논함에 있어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전제 중 하나는 분석대상이 과학적이어야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분석대상이 과학적이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적 분석, 혹은 비판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소화제를 어떤 질병의 특효약인양 속이고 환자에게 투약한 경우 실제로 효험이 발생하는 위약효과(placebo effect)의 경우 그 약 자체에는 과학적으로 약효를 발휘할 만한 성분이 전혀 없으나 그 약을 통해 벌어지는 현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할 만한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점쟁이가 새해 운수를 보는 것은 비과학적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점보는 행위가 왜 비과학적인지를 가리고 대중을 계몽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과학저널리즘의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곧 사이비과학의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과도 같다. 그 중 의학이나 제약과 같은 영역이라면 사이비과학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때 사이비의사나 약사의 의료행위는 비과학적이지만 그것을 계몽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과학의 역할이다. 물론 UFO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처럼 절박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UFO를 둘러싼 대중담론은 터무니 없이 비과학적이거나 사이비가 판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건전하고 비판적인 과학의 이해에 큰 장애가 된다. 무지라는 것이 어떤 시안을 알고 모르코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귀찮아하고 오직 편안한 통념에만 의존하여 살고자라는 태도의 누적적 결과물이라면, UFO에 대한 비과학적 이해는 곧 삶에 있어서 여타 과학적 영역의 무지와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학이나 IT분야가 과학보도에 있어서 주요 이슈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UFO학(Ufology)이나 심령술과 같은 사이비과학이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과학적 이해를 호도하고 있는지, 가뜰이나 과학적 문맹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위험한 경향을 초래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UFO, 외계인 납치, 유령이나 귀신, 심령술, 초능력 등을 총칭하여 패러노멀(paranormal)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언론학자 보다는 과학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피글리우치(Pigliucci,

2010)는 모든 과학의 공통점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한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는 능력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존재를 입증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외계비행체로서의 UFO는 존재의 증거가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UFO 신봉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논거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UFO 신봉자들은 목격담을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는데, 이 중에는 정치인, 군인, 경찰과 같은 저명인사나 공무원들의 목격담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다. 둘째, 허술한 인과관계에 의지하여 단정 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시류나 유행에 편승하여 목격담이나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넷째, 정부나 연구기관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함께 등장한다. 피글리우치는 이 모두를 사이비과학으로 규정하고 언론과 대중담론에 사이비과학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사이비 과학적 언론보도는 외형으로는 과학적 보도와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998년 미국의 유력 신문 <Washington Post>, 통신사 <AP>, 방송사 <ABC>는 일제히 일군의 과학자들이 모여 향후 UFO에 대해 진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 했다. 이들 언론사는 마치 이것이 UFO는 실제로 존재하고, 나아가 그것이 외계인의 비행체임이 입증되었음을 인정하는 성명발표로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게 보도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보도에서 말하는 몇몇 과학자들이 누구인지, 정상과학을 전공한 과학자들인지, 그들의 전공이 UFO를 연구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그저 자칭 과학자들이 모여 어떤 성명을 발표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과학자가 어떤 현상을 연구하기로 했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아무런 결론이 없다는 말에 다음 아님에도 언론의 설부른 보도는 대중들로 하여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Wander & Jaehne, 2000). 오버그(Oberg, 1979)는 과학자라고 해서 모두 과학 전반에 대한 주제에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과학자도 얼마든지 비과학적 사고와 사이비 논리에 현혹될 우려가 있다는 점, 과학자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연구의 실증적 결과물이라는 점을 들어 과학자들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 연구의 본문에서 재차 언급하겠지만 미국 언론의 이 보도 내용은 외신으로 국내 신문사에도 공급되었고, 국내 신문사도 미국 언론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논조로 이를 보도했다.

3. 우리나라 신문의 UFO보도 내용의 특징

분석대상으로 삼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등 네 곳 신문사가 지난 18년간 보도한 UFO기사의 빈도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UFO기사를 가장 자주 실은 곳은 <경향신문>이고, 가장 적게 실은 곳은 <한겨레>였으며,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UFO기사의 빈도수는 낮은 편이었으며, 한 해 한건의 기사도 실리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비교적 자주 UFO기사가 실렸다가 그 이후 급감했는데 추측컨대 세기말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흥미의 대상이 되었던 UFO가 1997년 말 소위 IMF사태라 불리던 외환위기를 맞아 수그러든 게 아닌가 볼 수 있다.

<표 1> 연도별 신문사의 UFO기사 분량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합
1994	0	0	1	0	1
1995	5	3	2	4	14
1996	7	2	1	2	12
1997	5	5	5	4	19
1998	1	0	1	3	5
1999	0	1	1	0	2
2000	1	2	2	1	6
2001	0	3	0	2	5
2002	1	3	0	0	4
2003	0	1	0	0	1
2004	1	2	2	2	7
2005	2	0	0	1	3
2006	2	2	1	1	6
2007	1	3	1	1	6
2008	1	0	0	1	2
2009	1	0	1	1	3
2010	3	1	0	1	5
2011	2	1	1	2	6
2012	2	0	0	1	3
합	35	29	19	27	110

1) 지나친 외신 의존

분석 결과 대부분의 UFO기사는 과학 면이 아닌 외신면에 실렸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향신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문사가 UFO기사를 외신면에 가장 많이 실었는데, <동아일보>는 기사의 27%이상, <한국일보>는 40%, <한겨레>는 무려 68%의 기사가 외신면에 실었다. UFO기사 빈도수가 가장 낮은 <한겨레>는 외신 의존 비중은 가장 높았고, 과학 면에 실리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신문이 UFO기사를 외신면에 실는다는 것은 UFO기사의 대부분을 우리나라 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외국 언론사에서 작성한 것을 그대로 가져와 번역만 한 것임을 뜻한다. 이처럼 타급기사가 많다보니 외국 언론사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신문 지면에서 그대로 실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처럼 외국 언론사에서 과학자라고 지칭한 사람들이 우리 언론에도 과학자로 등장한다거나, 사실 확인이 생략된 기사들이 그대로 보도되는 사례가 많았다.

<표 2> 지면별 UFO기사 비율, 괄호 안은 건수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과학	11% (4)	13.8% (4)	5% (1)	11% (3)
사회	43% (15)	20.7% (6)	15.8% (3)	33% (9)
국제/외신	14% (5)	27.6% (8)	68% (14)	40% (11)
문화	8% (3)	17% (5)	15.8% (3)	7% (2)
기타	23% (8)	13.8 (4)	5% (1)	7% (2)

2) 사실 확인의 부재

UFO를 보도함에 있어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과학의 분야에 있어서 사실 확인이 부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보도내용이 부실하다는 의미가 아닌 비과학이 과학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실 확인이 부재한 대표적 사례로 아담스키형 UFO, 외계생명체 로드, 최초 공개 문건에 대한 오보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아담스키형 UFO

2010년 1월 13일 <경향신문>은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윤군이 촬영한 물체는 전형적인 UFO(아담스키형)의 모습이다. 좌우대칭형으로 위쪽에는 둥근 돔 형태, 아래는 좌우 2개의 막대형 돌기가 선명하다. (중략) 경향신문은 지난 8일 윤군의 제보 사진 3장을 입수한 뒤 한국UFO조사분석센터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분석센터는 사진 분석과 함께 검증, 현장답사 등을 벌였다. 한국UFO조사분석센터 서종환 소장(51)은 12일 “모든 정황을 분석한 결과 사진이 편집·수정된 것이 아니며, 사진 속 물체도 새나 항공기 등 기존 비행물체일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했다. (경향신문, 2010. 1. 13)

위 기사는 목격자 윤군이 촬영한 비행물체는 “아담스키형”으로 불리는 전형적인 UFO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UFO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기사다. 아담스키(Adamski)는 ‘비행접시’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1940년대 UFO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타원형 형태의 비행물체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해서 유명해졌다. 당시 아담스키가 공개한 UFO의 사진은 좌우대칭으로 원형 동체 위에 작은 돔 모양의 뚜껑이 있는 모습이었다. 곧 아담스키의 사진은 선풍적인 화제를 모았고 그가 공개한 사진 속의 UFO처럼 생긴 UFO를 아담스키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담스키는 UFO와 외계인을 신봉하던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신화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는 자신이 외계인들의 초대를 받아 UFO에 탑승한 바도 있고 금성도 가본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금성은 쾌적한 날씨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천국과 같은 곳이고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훗날 아담스키가 제시한 UFO사진은 그가 달갈부화기를 실로 매달아놓고 촬영한 것임이 들통 났고, 금성에 대한 그의 묘사도 과학적으로 금성 표면의 온도는 수백 도에 이른다는 게 밝혀져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담스키형 UFO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2) 외계생명체 로드

UFO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이 미확인 생명체 로드(rod)와 크롭서클(crop circle)이다. 로드라는 것은 UFO가 외계비행체임을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UFO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외계생명체로 추정되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크롭서클이 발견된 적은 없으나 로드와 관한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각각 한차례 씩 보도했다.

충주에 또 UFO...지구생명체 '로드' 추정 (동아일보, 2001. 5.5)

한국UFO연구협회 서종한 조사부장은 19일 "컴퓨터 분석 결과 몸체가 회전하면서 비행하고 초속 1km이상의 빠른 속도로 보아 로드(Rod·막대)라고 불리는 UFO로 추정된다" 며 (이하 생략) (한국일보, 2001. 4. 20)

로드라는 외계생명체는 파배기나 나사모양의 회전체 모양으로 크기는 불확실하나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데 그 속도가 초속 3~4km에 이를 정도로 빠르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대중에게 크게 알려진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프랑스와 세네갈의 경기 TV중계 중 화면에 포착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공중과 방송에서 그것도 생중계로 외계생명체로 의심되는 무언가가 포착되었기에 외계인의 존재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희소식이었다. 그러나 방송사의 기술팀과 생물학자와 천문학자 등 다양한 학자들이 동원되어 확인한 결과는 화면에 잡힌 로드의 실체는 그저 여름에 자주 볼 수 있는 여치와 같은 흔한 곤충이었다. 이 곤충이 카메라의 근거리에서 가깝게 날아서 카메라에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로 촬영되었고, 이 모습이 실제보다 괴기스럽고 빠르게 보였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동아일보>, <한국일보> 모두 로드와 대한 의혹은 보도했지만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알리는 기사는 신지 않았다. 위에 인용한 두 기사를 보면 동아일보는 로드를 UFO의 일종으로 보는 동시에 "지구생명체"로 보는 기사 제목을 골랐다. 한국일보는 로드를 UFO로 추정한다는 한국UFO연구협회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둘 다 사실이 아니며, 정보원으로 언급한 UFO연구협회라는 곳도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단체다.

(3) 2007년 프랑스 국가차원에서 UFO 정보 최초 공개

기본적인 사실 확인은 과학저널리즘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언론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임무다. 사실 확인을 임무를 게을리 해서 발생한 오보가 있었다. 2007년 <한국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가 22일 지난 50여 년 동안 수집해온 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국가 기관이 UFO 정보를 공개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일보, 2007. 3. 24)

<한국일보>는 위 기사에서 프랑스가 국가기관이 UFO를 공개한 첫 번째 국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영국은 이에 앞서 2005년과 2006년에 국방부를 통해 UFO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미국은 이 보다 훨씬 앞선 1997년 공군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1947년 미국 로스웰에 추락했다고 알려진 UFO의 진상과 논란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영국과 미국이 발표한 정보의 골지는 UFO가 외계비행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 추락한 UFO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 UFO에 대한 음모론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에 앞서 영국과 미국이 UFO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는 내용들은 심지어 모두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아래 기사는 <한국일보>가 2006년에 영국 국방부가 UFO 관련 기밀문서를 공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다.

미확인비행물체(UFO)는 외계에서 온 물체가 아니라 진귀한 자연현상이라는 주장을 담은 영국 국방부 기밀문서가 공개됐다. BBC 등 영국 언론은 8일 영국 국방부가 2000년 작성한 UFO 관련 기밀 보고서에서 “미확인 공중 현상(identified aerial phenomena)’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같이 결론 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2006. 5. 9)

<한국일보>는 이미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과도 상충하는 기사를 낸 것이다. 사실 확인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 주는 예이다. 프랑스가 정부 차원에서 UFO 정보를 공개한 최초의 나라라는 오보는 같은 날짜 <한겨레>에도 실렸다.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가 22일(현지시각) 1954년부터 약 50여년에 걸쳐 모은 미확인비행물체(UFO)와 외계인 목격자료 1600여건을 웹사이트(www.cnes-geipan.fr)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정부 차원에서 미확인비행물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한겨레, 2007. 3. 24)

<한국일보>와 <한겨레>가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오보를 낸 것은 아마도 같은 정보원에 의존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두 기사 모두 외신면에 실렸는데, 외신을 직접 번역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통신사에서 공급받은 기사를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아담스키형 UFO가 목격되었다는 것, 외계생명체 로드가 발견되었다는 것, 2007년 프랑스가 UFO 정보를 공개한 최초의 국가라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기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학적 전문성을 지닌 정보원에게 문의해 보았다면 쉽게 드러날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신문이 UFO 보도에 있어서 주로 활용하는 정보원은 과연 누구인지 알아보자.

3) 정보원의 비과학성

분석대상이 된 기사에서 과학적으로 신뢰할만한 정보원을 인용하는 경우는 매우 찾기 어려웠다. 그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원이 크게 다뤄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정보원의 편향성은 비단 과학저널리즘의 영역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소위 ‘광우병사태’의 보도에서 이념적 지향에 따라 상이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 과학적 정보원도 필요한 내용만 편의적으로 인용하는 문제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고홍석, 이건호, 2010). UFO 보도에 있어서는 정보원의 비과학성이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앞서 본대로 UFO 기사가 외신면에 가장 많이 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급기사의 비중이 낮다는 것인데, 자급기사가 하더라도 비과학적 정보원이 과학적 정보원보다 크게 활용되었다. 모든 신문사에서 UFO 보도에 있어서 소위 ‘전문가’의 의견을

자주 다루었는데, 여기서 전문가로 지칭된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다. 전문가로 인용된 정보원들은 한국UFO협회, 한국UFO연구협회, 한국UFO조사분석센터, 한국라에리언무브먼트, MUFON연구소(미국)와 그 종사자들이었다. 기타 아무 맥락 없이 “UFO 연구자”나 그저 “전문가”라고 지칭된 경우도 있었다. 모든 신문사의 기사에서 적게는 55%, 많게는 66% 이상의 기사가 소위 ‘전문가’를 정보원으로 삼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과학자가 정보원으로 등장한 기사는 10%에서 4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한겨레>는 비록 과학자를 인용한 비율이 40%로 높게 나왔지만 이는 워낙 자급기사의 건수가 부족한 가운데 나타난 수치라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겠다.

<표 3> 자급기사 중 정보 출처 빈도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과학자	10% (3)	14.2% (3)	40% (2)	12.5% (2)
“전문가”	53.3% (16)	66.6% (14)	60% (3)	62.5% (10)
일반인	26.6% (9)	28.5% (6)	20% (1)	25% (4)
불분명	23.3% (7)	23.8% (5)	-	12.5% (2)

표3에서 보듯이 정상과학 범위에 속하는 과학자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비율로는 편차를 보이지만 건수로 보자면 모든 신문에 2~3건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전문가”라는 호칭으로 명명된 UFO연구단체의 회원은 50%~60%대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했다. 심지어 일반 시민의 목격담을 매우 중요한 근거로 인용하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의견도 있다”는 식의 불분명한 정보원을 인용한 경우도 많았다.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개인들이 전문가인양 소개된 대표적인 기사로 UFO 착륙장 건설 기사를 뽑을 수 있다. <경향신문>이 2000년 4월 17일자 과학 면, 2006년 3월 11일자 사회 면, <한국일보>가 2000년 4월 18일자 사회 면에 각각 보도한 기사를 예로 들겠다.

스님이 이들 시설을 만든 건 2000년. 1995년 UFO 안착지로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만들게 됐다고 한다. 한국UFO연구협회의 도움을 받았다. (경향신문, 2006. 3. 11)

기사에 따르면 경북 봉화 어느 암자의 스님이 UFO의 존재를 강하게 신뢰한 나머지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땅을 기증하였고, 한국UFO협회의 도움을 받아 착륙장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스님은 어느 날 우연히 UFO를 목격하고는 UFO의 존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이후 언젠가 지구로 착륙할 UFO와 외계인 손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 서치라이트와 녹화장비를 갖춘 UFO착륙장을 건설하기로 작정하고 한국UFO연구협회와 공동 작업 끝에 착륙장을 완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향신문>은 착륙장의 시설, 넓이, 조성과정은 물론이고 스님과 한국UFO연구협회의 협조과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세 건의 기사에서 과학자의 의견은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UFO기사에서 인용되는 정보원을 보자면 도무지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그 신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UFO협회, 한국UFO연구협회, 한국라에리언(라엘리언)무브먼트라는 단체들은 모두 과학적 연구능력과 분석능력이 검증된 기관이 아니며, 특히 국제적 조직을 지닌

라엘리언무브먼트는 자신들이 이미 인간복제에 성공했고, 복제된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도 그 증거나 복제된 인간은 공개하지 않는 등 사이비종교와 사이비과학을 오가는 단체로 유명하다.

<경향신문>은 2012년 4월 12일 서울 상공에 나타난 UFO를 촬영했다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외 언론에도 보도 되었으나 주요 권위지는 보도하지 않아 흥밋거리에 그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 의하면 권위지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이 화제를 보도한 <경향신문>은 스스로 권위지가 아님을 자인한 꼴이 되었다. 해외 유력 언론사는 언론계에서는 유명할지 모르나 과학적 권위까지 자동적으로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유력 일간지 <프라우다>는 2010년 보도를 통해 세 개의 거대 외계우주선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으며 당시 명왕성 부근까지 도달한 이 우주선 무리는 2012년 12월 지구이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경향신문> 2011년 1월 14일자에도 보도되었는데, 프라우다가 지정한 2012년 12월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사후 확인도 없었고, 우주선 무리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별도의 정보도 알려진 바 없다. 유력 언론사가 반드시 과학적 사실에 있어서 유력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분석대상 기사에서는 드물게나마 신뢰할만한 정보원이 설명하는 UFO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신뢰할 만한 정보원들은 한결같이 UFO 목격담에 대해 착각, 조작, 오류임을 지적한다. 비록 그 인용 빈도수가 사이비과학자들의 인용빈도수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지만 과학저널리즘의 보다 근접한 보도를 위한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아래와 같은 비교적 과학적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가장 문제점이 많은 기사도 실었지만, 가장 바람직한 기사도 실었다는 점이다. 반면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그다지 두드러지게 문제점이 많은 기사도 없었지만, 동시에 두드러지게 긍정적인 기사도 없었다. 과학저널리즘에 대한 전형을 갖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신문사는 분석대상인 네 신문사 중에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저널리즘에 있어서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인터뷰하는 것은 기본이고 필수과정이다.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에는 인공위성 추적팀이 있다. 박사과정 민상웅 학생에게 의정부 상공에서 빛나는 물체가 나타난 시각에 그 지점을 지나가는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를 조사해 보라고 했다.(중략) 한반도 상공을 낮게 날아다니는 저궤도 인공위성은 하루에 수백 개나 된다. 따라서 낮이고 밤이고 이런 물체가 카메라에 잡히면 우선적으로 높이 나는 비행기의 창문이나 인공위성에 비친 태양빛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UFO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경향신문, 2006. 2. 17)

국립천문대측은 『육안관측은 못했으나 주민들이 얘기하는 밝기와 이동방향 등으로 보아 목성일 가능성이 99%』라며 『목성은 여름철 밝기가 2.1등급으로 매우 밝게 빛나는데다 가을이면 5등급 이상으로 더 밝아져 자주 미확인비행물체로 오인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998. 7. 28)

4) 목격담 위주 보도와 후속 보도 부재

분석대상 기사 중에는 국내 UFO목격담이 많았다. <경향신문>은 총 8건, <동아일보>는 총 6건,

<한겨레>는 총 3건, <한국일보>는 총 8건의 국내 목격담 기사를 실었다. 물론 해외목격담 기사 역시 많았으나 이는 대부분 외신면에 실렸다. 국내에서 목격된 UFO와 관련한 기사는 주로 사회면에 실리고, 해외에서 목격된 사례는 국제 면이나 외신 면에 실렸다. UFO현상이 과학 면에 실리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지만, UFO출현에 대해서는 자주 보도했으나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보도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분석 대상 기사 중 후속보도는 <동아일보> 한 건, <경향신문> 한 건, 총 두 건에 불과했는데, 둘 다 자사로 제보된 UFO추정 사진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노력을 보도한 것이다. 의혹은 잔뜩 부풀리지만 막상 그것의 정체를 추적하는 일은 등한시 한 것이다.

두 건에 불과한 후속보도의 사례 중 <경향신문>의 보도를 살펴보자. <경향신문>은 2010년 1월 13일자 보도에서 윤 모군의 목격담과 사진을 보도하면서 한국UFO조사분석센터라는 기관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진은 조작은 아니며 평범한 비행물체가 아니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이틀 뒤 보도에서 목격자 윤군이 제시한 사진은 조작된 사진으로 드러났다고 정정 보도를 했다. 애초 사실 확인에 좀 더 면밀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다. 비록 드물게 후속보도를 통해 오류를 정정했으나 모든 정정보도가 그렇듯 애초 잘못된 보도가 없었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고, 비록 정정보도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잘못된 기사로 인해 발생한 파급효과와는 정정보도와 무관하게 오래도록 남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문은 UFO목격담에 대한 보도에 비해 그 후속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혹은 잔뜩 부풀려 놓고 입증은 포기하는 격이다. 그나마 이뤄진 후속 보도는 대개 목격자가 제시한 사진의 진위여부에 대한 것이고, 가짜로 판명된 경우 자사의 노력으로 사진이 가짜로 드러났음을 은근히 과시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또한 이러한 진위 논쟁이 벌어져 봐야 결국 문제의 핵심인 UFO의 정체는 뒤로 밀리고 사진의 진위가 핵심으로 등장하여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진다.

5) 언어와 용어의 혼란

Nullius in Verba. 영국왕립학회의 모토인 이 말은 “말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는 뜻이다. 이 말의 의미는 과학적 사실은 언어로 정리되고 전달될 수밖에 없으므로 언어의 사용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검증된 사실만 언어의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이 밝히고자 하는 가설, 연구방법, 연구결과와 그것을 정리한 이론 등이 모두 언어와 기호를 통해 전달되고 공유된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자면 언어가 없다면 사실도 없는 것이다(Reeves, 2005). 그러므로 과학은 문학만큼이나 수사가 중요한 분야다.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 사용은 과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과학이란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 접한 내용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직접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특유의 언어와 이미지라는 여과망을 통해 과학을 이해한다(Nelkin, 2010). 과학을 이해함에 있어서나, 과학저널리즘에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와 개념의 사용이다.

분석대상 기사 중 UFO목격담 기사는 몇 가지 점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첫째, UFO의 정확한 의미가 모호하거나 비과학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UFO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물체이며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진짜 UFO’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과학적이지 못하다. ‘진짜 미확인’이

나 ‘진짜 불분명’이라는 말이 형용모순이 되듯이 ‘진짜 UFO’라는 말도 모순이 된다. 그렇다면 올바른 헤드라인은 ‘시민 UFO목격주장, 정체는 불분명’ 정도가 되어야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로, 기사에 등장하는 한국UFO조사분석센터와 미국의 MUFON이라는 단체는 과학적 검증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공신력이 없는 곳이고, 증거와 관계없이 이미 UFO에 대한 존재를 굳게 믿고 있는 단체다. 우리나라의 자칭 UFO전문기관인 한국UFO협회나 한국UFO연구협회 역시 사진이나 동영상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자칭 외국의 UFO전문기관인 MUFON 등에 의뢰한다. 물론 MUFON 역시 외계인과 그 비행체로서의 UFO를 강하게 믿는 단체로 과학적 검증력은 없는 곳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언론이 해외 언론에서 보도하면 과학적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한 듯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

세이건(Sagan, 1996)의 주장대로 이미 결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 결론을 지지하는 데이터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이들에게 UFO 사진의 진위 여부나 목격담의 의미를 묻는 것은 사이비과학일 뿐 어떤 증거능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셋째로 UFO목격담 기사의 대부분은 사진이나 목격을 소개하면서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목격자가 경찰이나 군인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단서를 늘 빼놓지 않고 소개한다.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피사체가 비행물체라는 증거도 아니고, 외계인이 조종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사진이 진짜이므로 외계인이나 그 비행물체의 존재도 진짜인양 소개하거나, 목격자가 믿을만한 사람이니 외계인의 존재도 믿을 만 하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경찰이나 군인이 더 신뢰할만한 사람이라는 통념도 과학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목격 대상물의 정체까지도 신뢰할만한 것은 결코 아니다.

UFO는 글자 그대로 보자면 미확인 비행물체이다. 즉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비행물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이 외계인이 만든 비행물체인지, 지구인이 만든 것인지 여부는 그 이름만으로는 전혀 알 도리가 없다. 따라서 누군가 UFO를 목격하고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외계인이나 외계인이 만든 비행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름 만으로만 보자면 관찰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비행물체는 모두 UFO인 것이다. 그것이 여객기일 수도 있고, 풍선이나 기구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했다면 UFO인 것이다.

네 개의 신문사 기사중 UFO를 과학적 의미로서 미확인비행물체, 혹은 미확인 대기현상이라는 의미로만 사용한 기사는 단 한건도 없었다. 기사의 헤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대개의 신문기사는 UFO를 모호한 의미로 사용하거나, 의혹을 내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UFO 존재여부 다시 논란”과 같은 모호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이건 확실히 UFO가 맞다”라는 추측성 의미를 내포하거나, “로스웰 UFO 추락설은 밝혀질까”와 같이 음모설과 연루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표 4> UFO 용어 사용의 혼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모호한 의미	77.1% (27)	72.4% (21)	31.5% (6)	77.7% (21)
추측	45.7% (16)	44.8% (13)	15.7% (3)	37% (10)
음모론	20% (7)	20.6% (6)	15.7% (3)	33.3% (9)

우리나라 언론에서 UFO를 보도할 때, UFO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래 기사 제목들을 보면 신문에서 말하는 UFO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건 확실히 UFO가 맞다”와 같은 제목은 아예 외계인의 존재와 UFO가 외계인의 비행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여객기나 풍선을 관측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기사 제목에는 UFO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혹을 한껏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다. 모호한 의미로 사용된 헤드라인의 예를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 UFO 존재여부 다시 논란. 가평서 연달아 포착 관심 (동아일보, 1995. 10.18)
 또 UFO.../김포상공 5분간... 원형물체에 흰빛 (경향신문, 1996. 01. 27)
 “성대에 UFO가 떴다” 신고소동 (한국일보 1996. 6. 8)
 UFO 2대 출현/괴산서 방송촬영중 포착 (한국일보, 1997. 07. 18)
 UFO 외계인 상상의 나래피고 우주여행 (동아일보, 1997. 7. 22)
 러시아 보리밭에 UFO 착륙? (한겨레, 2000. 06. 27)
 “냉전종식후 UFO 지구 출현 급감” (동아일보, 2001. 04. 24)
 충주에 또 UFO 지구생명체 ‘로드’추정 (동아일보, 2001. 5. 5)
 월드컵 개막전때 UFO출현설 (동아일보, 2002. 7. 11)
 화성에 UFO? BBC “스피릿 관측” 보도 (동아일보, 2004. 3. 20)
 ‘X파일’ 진짜 있었네! / 英정부, UFO 목격담 기록 공개 (한국일보, 2005. 01. 25)
 英 ‘UFO X파일’ 공개-“상공에 헬기 4~5배의 밝은 물체 떠있다”(경향신문, 2005. 01. 25)
 UFO는 ‘단순 자연현상’? (한겨레, 2006. 05. 09)
 “이건 확실히 UFO가 맞다” (한국일보, 2008. 01. 11)
 ‘UFO는 있다?’ 뉴질랜드 국방부 秘파일 열다 (경향신문, 2011. 01. 14)
 로즈웰 UFO 추락설 진실은 밝혀질까 (경향신문, 2011. 04. 26)

위의 기사 중 “성대에 UFO가 떴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는 성군관대학교 축제 중 사용한 조명불빛이 밤하늘 구름에 반사된 것을 많은 주민들이 UFO로 착각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헤드라인은 매우 선정적으로 채택되어서 마치 UFO가 실제로 등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아래 보도는 서울에서 목격된 UFO의 정체가 탈북자들이 살포한 뼈라라는 “설”과 진짜일 것이라는 “평가”를 담고 있다. 양측 모두 의견을 제시한 주체는 불분명하다.

한편 지난 2월19일 광화문에서 찍힌 UFO편대 동영상은 일각에서 당일 탈북자 단체들이 북쪽으로 날린 뼈라 풍선이라는 설이 있지만 UFO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전히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경향신문, 2009.10.20)

위 기사에서는 기사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소개함으로써 기계적 균형의 요건을 충족한 듯이 보이지만, “일각”의 “설”과 “UFO연구자”의 “평가”라는 편향된 수사를 사용함으로써 수사적 균형을 맞추는 데에는 실패했다. 더구나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는 결론은 전형적인 사이비과학의 수사학이다.

잔뜩 의혹을 부풀리고는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모호하게 마무리하면서 ‘누가 알겠소’라는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는 것이다. 언론학자 슈나이더는 이런 식으로 의혹을 잔뜩 보도하고는 진위여부는 모호하게 마무리하는 언론의 태도를 ‘후노우스(Who knows?)언론’이라고 칭하면서 기사나 언론사가 스스로 보도하는 기사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야말로 누가 어느냐고 묻는다(Schneider, 2007).

4. 결론

초기 매스컴 연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1938년 웰즈(Wells)가 만든 라디오 드라마 <화성침공> 사건을 들 수 있다. 드라마를 청취한 수백만의 시민들이 화성에서 외계인이 침공했다는 내용을 사실로 믿고 우왕좌왕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헤프닝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로 인해 초기 강효과 이론이 등장했고, 그 후 연구의 과학화와 정교화를 통해 강효과 이론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미디어 효과가 장기적, 누적적으로 보았을 때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웰스의 <화성침공>은 공상과학 소설작가 웰스(H.G. Wells)가 1898년 발표한 소설 <우주전쟁>(War of the Worlds)에 바탕을 둔 것이다. 소설이 발표될 당시에는 우주관측 망원경이 정교해지면서 화성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게 된 시점이었고 대중의 관심이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여부에 집중되었다. 라디오 드라마 <화성침공>이 방송된 1938년의 세계정세 역시 불안하기 그지없던 시기였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시즘과 자본주의에 근간을 둔 제국주의적 패권세력이 서로 충돌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이듬해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할로윈데이에 방송된 외계인 침공사건은 이미 불안의 심리기제를 안고 살았던 사람들의 공포심을 폭발하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에게 과학의 엄밀함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그 불안의 분위기에 편승할 것인가, 아니면 무모하리만치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인가? 과학 저널리즘의 미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 달려있다.

일본 국립천문대의 홍보실장인 와타나베 준이치는 저널리스트들에게 기초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과학기자 중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기자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 천문학의 최신 성과를 취재하러 온 기자에게 초등학교도 아는 우주의 기본 구조 이야기부터 설명해야 할 판이라고 와타나베는 한탄한다(일본과학기술저널리스트회의, 2010).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과학저널리즘의 수준도 별반 다르지 않다. 황우석 박사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우리 주변에는 과학으로 이해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나로호 발사가 그렇고, 조류독감이나 신종플루의 문제가 그렇다. 북한의 핵무장 문제나 매해 어김없이 등장하는 먹거리 안전문제에서도 과학저널리즘은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언론은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흥미를 자극하는 보도에 치중할 뿐 현상과 진실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황우석 사태 이전에 비해 나아진 점을 찾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UFO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모호한 언어사용, 불분명한 의미, 이미 결론을 지니고 현상에 접근하거나 그런 입장을 지닌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 손쉽게 기사거리를 얻으려는 자세, 흥미위주의 보도와 후속보도 불발, 그리고 누가 진실을 알겠는가 식의 태도는 과학저널리즘과 거리가 멀다.

과학저널리즘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과학저널리즘은 과학자, 홍보담

당자, 기자, 독자와 같은 인간행위자 뿐 아니라 논문, 보도자료 등 비인간행위자들과 잡종 동맹을 맺고 있어 과학적 전문성과 저널리즘의 전문성을 모두 요하기 때문에 쉽게 실패할 수 있는 영역이다(이충환, 2012). 따라서 과학과 언론 양 분야에 모두 전문적 교육을 받은 인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과학저널리즘을 위한 준칙이나 내규를 언론사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과학저널리즘 과정이 대학원에 개설된 학교들이 많으나 우리의 경우 과학저널리즘 과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 향후 과학저널리즘 과정의 확대가 절실하다.

UFO 현상과 같은 패러노멀 현상에 있어서 목격담은 거의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곤 한다. 이 경우 과학적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해도 그 대상이 반드시 신비로운 것은 아니다. 둘째, 상호 무관한 현상도 연달아 일어나면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셋째, 정상과학의 이론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는 측에 증명의 부담이 있다. UFO 신봉자들은 이 세 가지를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많은 사람이 목격했고, 그중에는 저명한 정치인이나 경찰관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은 소위 UFO나 신비로운 현상이 목격된 즈음에 발생한 어떤 자연 현상을 억지로 꿰맞춰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어떤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 UFO가 자주 목격되었다는 식의 주장이 그것이다. UFO 신봉자들은 또한 정상과학이 UFO의 정체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UFO는 외계인의 비행체가 맞다는 주장을 종종 제기한다. 정상과학은 UFO의 정체가 대기현상이나 정상적 비행체를 오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의 증거가 없으니 긍정해야 한다는 궤변을 과학적 주장인양 말하고 있다. 문제는 UFO 신봉자들의 사이비과학이 아니라 우리 언론의 사이비과학이다. 대개의 대중들은 과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고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수용할 개연성이 높다. 세이건(1996)의 말대로 “과학은 (사이비 과학)의 악마가 넘실대는 세상에서 어둠을 밝힐 촛불이다.” 언론이 과학저널리즘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다면 세상이 밝아지는데 더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명구 외 (2007), “애국적 열망과 숭고한 과학”,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59~90.
- 고홍석, 이건호 (2010), “한국 신문의 과학 보도에 나타난 취재원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미국 쇄고기 수입 관련 과학 기사의 경우”, 『사회과학연구논총』, 24호, 29~73.
- 박은선, 이광형, 김찬석 (2012), “과학기술 실패 보도 프레임 연구: 한국과 미국의 초기 우주 발사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3호, 213~237.
- 이충환 (2012), “과학보도는 왜 실패하기 쉬운가? ETRI 김현탁 박사팀 보도에 대한 ANTI분석”, 『과학기술학연구』, 12권 1호, 145~138.
- 이화행 (2007), “일간지 과학지면의 특성과 경향 비교 연구: 1994년과 2004년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권 1호, 223~261.
- 일본과학기술저널리스트회의 (2010), 박성철, 오카모토 마사미 역, 『과학저널리즘의 세계』, 한울.

- Clark, J. (1997), *The UFO Book: Encyclopedia of the Extraterrestrial*, Hendrics & Sons.
- Jebsen, H. (2010), “Science on Science: Past, Present and Future on Science Education” *American Science Pedagogy*, 5: 19, 203~219.
- Nelkin, D. (2010), *Selling Science*, 김명진 역, 『셀링 사이언스』, 서울: 궁리.
- Nickell, J. (2007), *Adventures in Paranormal Investigati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 Oberg, J. (1979), “The Failure of ‘Science’ of UFOlogy” *New Scientist*, 79, 35~71.
- Pigliucci, M. (2010) *Nonsense on Stilts: How to Sell Science*, 노태복 역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궁리.
- Reeves, C. (2005) *The Language of Science*, 오철우 역 『과학의 언어』, 궁리.
- Sagan, C. (1996) *The Demon-Haunted World: Science as a Candle in the Dark*, Ballentine Books.
- _____ (2010) *The Varieties of Scientific Experience*, 박중서 역,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 사이언스북스.
- Schneider, A. (2007) *Why American Journalism Failed*, Stonebridge.
- Upton, M. (2009) *Science Illiterate: Problems and Issues in Science Education*, Watermarks.
- Wander & Jaehne (2000), “Prospects for a rhetoric of science”, *Social Epistemology*, 37: 2, 76~94.

(투고일자: 2013. 02. 28, 수정일자: 2013. 04. 18, 게재확정일자: 2013. 04. 23)

ABSTRACT

Unidentified Flying Objectivity: The Rhetoric of Pseudo-Science in Four Major Newspapers in Korea.

Soon-Chul Shin*

There have been enormous social impacts on many areas, including science journalism, since the so-called “Hwang Woo Suk” incident. Although wide demand for better science journalism has been aroused since then, but it is hard to find an evidence to prove we have reached the point. This study examines how major Korean newspapers report Unidentified Flying Objects in order to test if the level of science journalism had been elevated. As results, still it is a long road ahead to achieve the goals because most reports were taken from the international news agents or from the witnesses rather than scientific researches and analyses; terminologies used in the stories were ambiguous; follow-up stories were rare, the sources were usually pseudo-scientific, wanton errors in basic facts and coherence, and other problems were found. It could be suggested that the dependency on supplied news to be reduced, journalists who understand both science and journalism are required, inner regulations on science reporting to be established, correct quotations and fact-checks to be accomplished, fairness to be maintained within the boundary of normal science.

Keywords: Unidentified Flying Objects, UFO, science journalism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Handong Global University